



“쿵쿵쿵’ 굉음 후 배 기울어 ...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다”



세월호가 90도 기울어지면서 갑판에 매달린 승객들이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독자 제공)

긴박했던 사고 순간

충돌 직후 차분하던 객실 “그대로 있으라” 선내 방송 승객들 물 차오르자 탈출 시도... “안내방송만 잘 했어도...”

“갑자기 ‘쿵쿵쿵’하는 굉음이 2분 동안 울리면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배가 기울자 객실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는 승객들이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 잡는 나란이 아니었어요. 갑판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고요, 이곳저곳에서 울부짖고...”

“선실 통로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데, 배가 기울어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진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 지 모르지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16일 오전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침몰사고 후, 구조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탑승객들은 긴박했던 순간을 이렇게 떠올렸다.

구조된 심상길(56·제주시 이동2동·화물차 기사)씨는 “4층 객실에서 아침식사 후 쉬고 있는 데 배에 실린 컨테이너 같은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구조된 승객들은 사고 순간에는 큰 염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충돌 비슷한 소리는 났지만 연기나 폭발 같은 것이 없어 비교적 차분히 구명조끼를 입고 사고에 대처했다는 것이다. 승무원들이 처음에는 “배가 기울으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했으나 20여분이 지나면서 배에 물이 차오르자, 상당수가 갑판으로 뛰어 나오는 등 혼란이 시작됐다고 구조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동수(50·제주시 함덕동)씨는 “배가 기울는 순간에 구조대원 한명이 들어와 구조를 진행했다”면서

“헬기에서 내려온 구조 바스켓에 타느라 애를 먹었다”며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렸다.

오용선(53·제주도 서귀포시 도흥동)씨는 친구인 김동수·오용선씨와 함께 구조헬기에서 내려보낸 구조 바스켓에 주위 사람들을 먼저 태우기도 했다.

허영기(47·경기 성남시 중원구)씨는 “사고가 나자 승무원들이 움직이지 말라고 해, 객실안에 있던 물이 치는 것을 보고 탈출했다”면서 “충격을 받아 몇 층에 탑승했는 지조차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객실에 있으라’는 안내 방송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탈출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워했다.

안산 단원고 김유환(18)군은 3층 로비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배가 기울면서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진 지 약 10분 정도 후에 구조됐다. 안산에서 긴급히 내려온 가족들을 따라 귀가한 김 군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다.

이와 함께 취재진이 확보한 침몰 당시 선내 촬영 영상에도 긴박한 상황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90도가량 기울어져 서서히 침몰하는 선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현장을 전했다. ‘배 안에서 움직이면 위험하니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이 반복됐지만 승무원으로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은 불안감을 드러내며,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선체의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앉아 있던 승객들은 구조를 위해 출동한 헬기와 선

여객선 침몰 사고 시간대별 상황



- 16일 오전 8시 52분: 전남 진도군 관매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신고 전남소방본부로 최초 접수.
- 8시 58분: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 사고 정식 접수
- 9시 10분: 해양경찰청, 구조본부 가동
- 9시 40분: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가동
- 9시 4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본부장 안전행정부 장관)
- 10시: 박근혜 대통령 "단 1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에 최선 다하라" 지시
- 10시 15분: 1차 공식브리핑 "476명 승선,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 10시 30분: 안행부 장관, 소방방재청장 현장 출동
- 11시 10분: 해수부 장관 현장 출동
- 11시 30분: 중대본, 2차 공식브리핑 "161명 구조"
- 12시 30분: 중대본, 3차 공식브리핑 "171명 구조...선사 직원 박지영씨 1명 사망" 해군 특수부대 21명, 서해해경청특공대 7명 등 특수구조 인력과 헬기·선박 투입
- 오후 12시 50분: 중대본 "단원고 2학년생 정차윤군 사망"
- 1시 30분: 중대본 "구조 368명, 사망 2명 확인"
- 2시: 중대본 4차 공식브리핑 "7명 병원 이송...특수구조인력 350명 투입, 선체 인양 위한 대형크레인 확보", "여객선은 사실상 침몰"
- 3시: 해양, 중대본에 구조자 수 집계 오류 통보
- 3시 30분: 중대본 정청브리핑 "구조자 수 집계 오류...확인 중"
- 4시 30분: 중대본 5차 브리핑 "탑승자 459명으로 재확인...구조 164명, 사망 2명, 실종 293명" 탑승자 중 학생 325명, 교사 15명, 일반인 89명, 선박 30명"
- 5시: 해양·해군 특수인력 40명 투입

박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또 영상 속에는 ‘학생들을 쫓겨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 승객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학생을 구조에 힘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세열기자 hot@kwangju.co.kr /수습기자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구조현장 찾은 가족 표정

“바다 추운데 우리 아들 어떡해”... 통곡의 팽목항

“살아만 있어, 꼭 구할게, 죽는 것 아니지.” “바다 속 추운데 우리 아들 어떡해.”

16일 오후 7시30분 진도군 팽목항은 통곡으로 가득했다.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부모들의 절규가 어둠이 내려앉은 조그만 항구에 울려퍼졌다.

제주행 수학여행길에 올랐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부모들은 팽목항에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비슷한 시각, 구조된 승객들이 머물던 진도군 체육관도 눈물바다였다. 이날 오후 5시30분경 경기도에서 버스로 내려온 안산고 학부모들은 자녀 이름을 부르며 체육관으로 뛰어들었다.

걱정 속에 자식 얼굴을 접한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체육관에서 자신의

자녀 얼굴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입실 명단을 뒤적이다 이내 실신했다.

학부모들은 190여명의 학생들이 학생이 오고 있다는 보도만 믿고 있다 “해경의 집계에 착오가 있었다”, “현재로는 생존자가 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진도군 관계자의 말에 다시 한번 절규했다.

배향배(18)군 누나는 “어쩌면 안개 때문에 수학여행이 연기될 지도 모른다”고 전화를 걸었던 당시를 기억하며 “잘 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때까지 자식·손자를 찾지 못한 학부모와 할아버지·할머니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장손인 손자를 애지중지하며 귀여워했던 할머니는 “순진한 내

손자가 안내방송을 맡을 끈이끈대로 들고 방안에 있었나보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묵묵히 체육관 2층 의자에 앉아있던 신영진군도 소리 없이 울음을 닦아냈다. “기다리는 친구가 한 명이 아니네...”

“괜찮을거야”며 위로하던 또 다른 친구는 “배 3층 로비에 있던 동급생이 50여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명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고개를 떨궜다.

조카를 찾지 못한 고모 박모(42·강진군 마량면)씨는 “안내 방송만 제대로 했어도 더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탄식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현장 상황을 알 수 없고 잘못된 내용만 터져나오면서 답답해 미치겠다”며 항의가 쏟아졌다. /이충환기자 golee@·수습기자 백희준기자 bhj@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KHSA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엔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상담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 공모

여수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으로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훌륭하신 분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임원으로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본부장 1명
- 원서접수
 - 기간 : 2014. 4. 17. ~ 2014. 5. 2. 18 : 00까지
 - 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전남 광양시 향안대로 465 경영지원팀)
 - 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기타사항
 - 응모지원서 등의 제출서류 서식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www.ygpa.or.kr)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경영지원팀 (☎ 061-797-4360, 4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7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